

No. 2013-33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8. 12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일본기업 엔저 활용, 연구개발 투자확대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종료, 일본의 추가하락 등에 따른 엔화 매입 수요증가로 강세
- 장기금리 : 엔화 강세, 추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(국채가격 상승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8.5(월)    | 8.6(화)    | 8.7(수)    | 8.8(목)    | 8.9(금)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    | 99.08     | 98.00     | 97.35     | 96.72     | 96.60     |
| 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    | 1,137.17  | 1,135.84  | 1,141.60  | 1,157.94  | 1,151.25  |
| 닛케이평균주가(종가)          | 14,258.04 | 14,401.06 | 13,824.92 | 13,605.56 | 13,615.19 |
| 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 | 0.770     | 0.780     | 0.750     | 0.755     | 0.755     |

### 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6월 수출은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,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축소  
\*대한국 수출,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, 대한국 무역수지흑자는 확대
- 2013년 6월 경상수지는 무역·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어 흑자폭이 축소
- 2013년 6월 실업율은 3.9%로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

| 구분              | 2012       | 2013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월    | 2월    | 3월    | 4월    | 5월    | 6월    | 7월    |
| 실질GDP증가율(연율,%)  | 1.2(2.0)   | 4.1   |   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수 출(천억엔)        | 639(637)   | 48    | 53    | 63    | 58    | 58    | 61    | -     |
| 수 입(천억엔)        | 721(707)   | 64    | 61    | 66    | 67    | 68    | 62    | -     |
| 對한국 수출          | 49.7(49.1) | 4.01  | 4.25  | 5.21  | 5.07  | 4.61  | 4.54  | -     |
| 對한국 수입          | 32.8(32.4) | 3.12  | 2.92  | 2.81  | 2.58  | 2.85  | 2.57  | -     |
| 직접투자(억달러)       | (1,223)    | 226   |   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對한국 투자          | (40)       | 7.5   |   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소비자물가(전기비상승율,%) | ▲0.2(0.0)  | ▲0.3  | 0.1   | 0.3   | 0.3   | 0.2   | 0.0   | -     |
| 실업율(%)          | (4.4)      | 4.2   | 4.3   | 4.1   | 4.1   | 4.1   | 3.9   | -     |
| 경상수지(천억엔)       | 42.9(47)   | ▲3.6  | 6.4   | 12.5  | 7.5   | 5.4   | 3.4   | -     |
| 엔화 對미달러         | 82.9(80.1) | 89.2  | 93.2  | 94.8  | 97.7  | 101.0 | 97.4  | 99.7  |
| 환율 對원화(100엔)    | (1,413)    | 1,197 | 1,166 | 1,161 | 1,148 | 1,100 | 1,165 | 1,130 |
| 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 | 12.5(12.7) | 12.7  | 12.6  | 12.5  | 12.6  | 12.5  | 12.4  | -     |
| 국채금리(10년, 연리%)  | 0.560      | 0.740 | 0.665 | 0.560 | 0.600 | 0.860 | 0.855 | 0.795 |

주1)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### 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아베노믹스로는 강해질 수 없는 일본경제』 미쓰비시UFJ리서치&컨설팅, 8월3일  
\*출처:[http://www.murc.jp/thinktank/rc/quarterly/quarterly\\_detail/201303\\_136/](http://www.murc.jp/thinktank/rc/quarterly/quarterly_detail/201303_136/)
- 『2013년판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: 국제비즈니스를 통한 일본부흥』 JETRO, 8월9일  
\*출처:<http://www.jetro.go.jp/world/gtir/2013/>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기업 엔저 활용, 연구개발 투자 확대

### □ 엔저로 연구개발투자 활발

- 엔저에 의한 경영실적 회복으로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
  -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닛케이신문의 조사에 의하면, 주요 261개사중 24%에 해당하는 63개사가 작년도에 비해 2자리대의 증가율을 보임과 동시에, 전체 조사대상 기업들의 증가율도 5.4%로 작년도의 4.3%를 상회
  - 투자액 순위 3위 이내 기업들 모두 자동차업체로서, 차세대 에코카의 주역으로 기대되는 연료전지차 개발에 주력
  - 주력하고 있는 연구테마는 에너지절약기술이 50.2%, 신에너지기술이 44.4%로, 전기·IT·기계뿐만 아니라, 소재·건설·토목 등의 업종에서 절반 이상이 에너지절약기술을 중시

### □ 자동차, 연료전지차 개발에 주력

- 261개사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11조 3,806억 달러로 4년 연속 증가
  - 1위인 도요타자동차가 11.3% 증가한 9,000억엔
    - 대당 1억 엔이었던 가격을 대폭 인하한 신형 연료전지차를 이르면 2015년에 발매할 계획으로 비용절감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
  - 2위인 혼다는 지난 7월 제휴한 미국 GM사와 연료전지차의 핵심기술을 개발
    - 연비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(HV)에 탑재하는 신형 모터개발에 주력

### □ 기계,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 주력

- 자동차와 함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높은 기계업계도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 주력
  - 23%의 대폭적인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은 700억엔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효율의 발전소용 가스터빈, 연료전지, 해상풍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
  - 에코카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업체들은 소재·부품을 제공하는 소재업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  - 미쓰비시케미컬이 자동차 내장재용 식물계통플라스틱을 프랑스 자동차업체와 2014년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 중
    - 도레이도 탄소섬유를 자동차 등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

### □ 전기·IT, 히타치와 도시바가 주도

- 전기·IT분야에서는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가 크게 증가

- 히타치는 수처리, 철도, 축전지 도시바는 휴대정보기기용 플래쉬메모리와 차세대송전망 등의 연구에 주력
- 가전업체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연구개발투자는 감소했으나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축전지 등 성장잠재력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

## □ 신흥국 중심의 해외연구개발 거점 강화

- 일본기업들은 신흥국시장을 겨냥하여 수요기업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
  - 해외 연구협력파트너로서 수요기업을 중시하는 기업이 16.9%인데 업종별로는 소재 관련 기업이 34.6%를 비롯한 전기·IT 및 자동차, 자동차부품 등이 많음
  - 향후 해외거점을 증가시키겠다는 기업들도 22%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제품개발의 가속화와 신규진입을 겨냥
  - 해외 협력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사에 없는 연구테마가 가장 많은 43.5%, 신제품개발의 가속화가 39.3%, 신규분야 참여가 35.5%로 모두 국내 연구소를 혁신기술의 창출거점으로 설정하는 한편, 아시아 및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추진
- 닛산자동차는 브라질의 개발거점을 2014년 가동예정인 신규공장 오픈에 맞추어 확충
  - 현지생산차량의 개발과 부품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, 인도에 있는 르노와 공동 설립한 개발거점도 증강할 계획
- 히타치제작소는 금융시스템 및 철도 등 신흥국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추진
  -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처리, 교통망,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
- 향후 해외연구거점을 신설·증강·확충하겠다는 기업이 22%로 작년의 14.4%를 상회
  - 전기·IT는 30%, 자동차는 34.5%, 소재가 30.8%로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

## □ 아시아지역 대학과의 제휴도 활발

-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대학과의 제휴도 활발
  - 제휴상대로는 중국이 75.35%로 압도적, 이어 싱가포르가 11.1%
    - 도시바의 경우, 중국에서 청화대학-도시바 에너지환경연구센터를 발족, 발전소용 증기터빈날개 등의 고성능화, 수명연장, 철도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일본정부의 중기재정계획

- 일본정부가 8월 8일,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의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, 2015년도와 2020년도의 재정재건목표를 유지할 방침
  - 그러나 이 계획은 소비세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잠정적인 계획단계임
  - 각의에서 소비세증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계획을 수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, 재정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삭감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필요
- 재정건전화 목표는 일단 유지할 방침
  - 일본정부는 명목GDP대비 기초재정수지의 적자를 2015년도에 201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,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할 계획
  - 2015년도 적자반감을 위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2년간 8조엔 줄이는 동시에, 신규 국채발행을 연간 43조엔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
  - 적자축소를 위한 유력한 수단인 소비세증세는 아베 총리가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면서 올 가을에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, 이번 계획에서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는 정도에 그침
- 성장률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도 주목
  - 소비세 증세를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서 2014년도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치가 1%인데 대해,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제대책을 예상하지 않은 단계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음
  - 성장율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세수전망치도 커지기 때문에 세출삭감에 대한 노력이 안이해 지기 쉽기 때문임
- 향후 10년간을 전망한 중장기경제재정의 시산결과에 의하면,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함으로써 2015년도의 적자반감목표는 달성하게 되나, 2020년도는 명목GDP대비 2%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흑자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됨
- 일본정부의 목표인 연평균 3%정도의 명목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시산의 전

제가 되고 있는데, 이 같은 높은 성장률로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음

- 기초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정책운영은 신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채잔고는 줄어들지 않게 됨
- 나아가 경제성장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지출도 증가, GDP대비 공채잔고도 2014년도의 191%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멈추기는 하나, 2023년도까지 190%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

○ 세입증액만으로 한계

-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여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금리도 상승,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음
- 결국 세출삭감과 증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나, 8일 결정한 재정운영 방침에는 이에 대한 판단재료가 없음

○ 이번 계획에서는 일반세출 총액에 명확한 수치의 상한이 없어, 매년 1조엔 규모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등 개별 세출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수준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표현에 그침

- 앞으로 2년간 증가하는 세수는 신규 세출에 충당할 계획

○ 민간 연구기관들은 세수가 계획대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, 세입을 늘려 세출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소재업계의 과잉설비 조정 가속

- 일본 소재업체들의 과잉설비 폐기 가속화
  - 미쯔비시케미컬과 아사히카세이가 에틸렌 생산설비 1기를 2016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
  - 철강과 석유정제 분야에서도 생산중단이 이어지고 있음
- 생산 중단 이유는 자동차업체 등 수요기업의 해외진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,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외국기업들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
  - 기업들의 경기체감도는 호전되고 있으나,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수익개선을 위한 합리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
- 미쯔비시케미컬과 아사히카세이의 자회사인 미쯔비시화학과 아사히카세이케미컬즈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미즈시마(水島)콤비나트의 에틸렌 생산설비 2기 중 아사히케미컬즈가 보유하고 있는 1기를 중단
  - 가동율이 80%대에 불과한 양사 설비를 1기로 집약시켜 생산능력을 연간 50만 톤으로 조정하여 절반정도 감축
  -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양사 합쳐 연간 100억 엔의 비용절감효과를 예상
- 철강분야에서는 고베제철소가 고로를 폐기하여 현재 820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2017년도말까지 700만 톤으로 축소
  - 장기적으로는 내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, 신일철주금도 기미츠(君津)제철소의 고로 3기중 1기를 2015년도까지 폐기할 계획
  - 일본의 인구감소 등을 배경으로 내수가 2020년대에 5,000만 톤대 전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, 중국 철강업체들이 설비과잉에 직면
- 석유업계도 마찬가지로, 코스모석유가 7월말 사카데(坂出)제유소를 폐쇄
  - 2014년 3월말에는 JX일광일석에너지가 무로란(室蘭)제유소에서 원유처리기능을 중지하고, 이데미츠코우산(出光興産)도 2014년 3월말에 도쿠야마徳山제유소의 기능을 중지하게 됨



## □ 도시바 미국 샌디스크사와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

- 도시바가 세계 최대 메모리카드제조업체인 미국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디지털 가전의 기억매체에 사용되는 반도체메모리 최첨단공장을 미에(三重)현에 건설
  - 이르면 2014년 중 양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투자액은 4,000억 엔, 본격적인 증산투자는 약 2년만이며 생산능력은 20% 확대
  - 최근 일본 반도체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, 도시바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삼성전자를 추격하려 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도시바는 샌디스크와의 합작기업에서 NAND형 플래쉬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데, 신공장은 합작기업이 운영하는 미에현 부지 내에 설립되며 투자는 샌디스크와 절반씩으로 도시바의 부담은 약 2,000억 엔
  - 현재 생산능력은 직경 300밀리미터 웨이퍼 환산으로 월 45만매인데 신규투자로 월 10만매정도 확대할 예정
- 도시바는 신설공장에서 반도체의 회로선폭을 현재 19나노(나노는 10억분의 1)미터에서 16~17나노미터로 미세화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데, 매당 실리콘웨이퍼로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 개수를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코스경쟁력에서 삼성보다 우위에 선다는 계획
  - 삼성은 다수의 칩을 중첩시킨 칩단제품의 양산을 이르면 2014년에 개시할 전망인데, 삼성과 도시바가 각각 최신 기술을 투입하여 반도체의 소형화와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체제에 돌입
- NAND형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요가 급감, PC에 사용되는 DRAM과 함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도시바는 작년에 30% 감산
  - 그러나 현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으로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미국 애플사와 중국기업들로부터 수요가 증가
  - 이 때문에 도시바는 200~300억 엔을 들여 요카이치(四日市)공장 내에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결정
  - 중기적으로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하되 2015년도 말까지 단계적으로 투자,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연장할 계획



## 5 한국관련워치

### □ 한일 합작으로 한국에 터보차저 생산공장 설립

- IHI(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)가 자동차용 에너지절약기술의 터보차저(과급기)를 현대자동차와 공동생산하기로 함
  - 터보를 탑재함으로써 엔진출력을 보충하는 연비를 20%정도 개선할 수 있음
- 자동차업체들이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작년에 생산된 세계 신차 약 8,400만대 중 30%에 탑재
  - 향후 3년 내 1,000만개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, 한일 합작으로 연간 100만개를 생산
- IHI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부품업체와 이르면 10월 생산합작기업을 설립
  - IHI는 49%를 출자하여 터보의 설계기술 등을 제공
  - 충남 서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설, 2020년까지 신규회사에 20억 엔을 투자, 연간 100만개까지 생산능력을 확대
  -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전략차종에 동 부품을 탑재하여 유럽 등에 수출
  - 터보를 탑재하면 엔진배기량이 적어도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, 환경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는 터보 탑재차량을 발매하는 움직임이 활발
  - 2012년 세계 터보시장은 약 2,500만개로 앞으로는 미국과 신흥국에서도 도입될 전망

### □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관계 강화

- 닛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영토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2회째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FTA 교섭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음
- 특히, 한중이 FTA교섭에 적극적인데는 일본의 TPP교섭 참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
  -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한중 양국은 미일 주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차세대 무역·투자 룰을 정비하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도 있음

- 일본의 TPP교섭참가 효과도 있어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3개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있음
- 한중일이 통상교섭을 통하여 상호 필요한 관계임을 확인한 마당에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
-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철폐로, 90%이상의 품목에 걸쳐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한중은 아직 이에 신중한 자세
- 한중 양국은 2국간 FTA교섭을 추진, 일본과의 자유화에 앞서 연대를 강화할 계획
- 한중일 3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나, 이 같은 움직임을 일본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
- 오히려 일본은 관세철폐만이 아니고 여타 교섭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자유화를 제안하여 자유무역권으로서 한중일 FTA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
- 이를 위해서는 투자 룰의 정비, 원산지증명 절차, 국영기업의 개혁 등 일본 주도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많음
-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TPP와 같은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위한 교섭강화가 필요
- 한중일 FTA의 향방은 동아시아 광역 FTA인 RCEP의 진전 여부를 좌우
- TPP교섭 진전을 발판으로 한중일 3개국의 FTA를 핵심으로 자유화와 룰 제정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고 닛케이신문은 주장